

# ‘매직 넘버 1’ 광주FC, 16강 조기 확정 나선다

## 24-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오늘 산둥 타이산 상대로 7차전 리그 스테이지 마지막 원정 경기 대폭 변화된 선수단 호흡이 관건 ‘아시아 폭격기’ 아사니 활약 주목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가 토너먼트 티켓 조기 확보를 노린다. 16강 진출에 필요한 승점은 단 한 점이지만 올해 첫 경기인 만큼 승리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11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중국 산둥성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산둥 타이산과 2024-2025 AFC(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7차전을 치른다.

아시아 무대에서 개막 3연승으로 돌풍의 시작을 알린 광주FC는 리그 스테이지 4승 1무 1패(승점 13·골득실 +6)를 기록하며 동아시아 2위를 질주하고 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골득실 +11), 비셀 고베(골득실 +4)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순위가 갈린 상황이다.

리그 스테이지에서 66.7%의 승률을 기록한 광주FC는 16강 진출 조기 확정에도 청신호를 켜다. 동아시아 8위까지 토너먼트 티켓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9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16강 진출 조기 확정에 필요한 승점은 1점뿐이지만 이정효 감독은 승리로 올해



광주FC가 11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중국 산둥성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산둥 타이산과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7차전을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달 태국 코사무이 마랄레이나 스포츠 리조트에서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또 16강이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4위와 5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높은 순위일수록 유리한 대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감독은 지난 9일 출국에 앞서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 번 부딪혀 봐야 한다. 체력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조직적으로는 우려가 있다”며 “겨우내 연습했던 걸 경기 직전에 바꾸고 있는데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관건이

다. 기존 선수들과 소통하면 경기장 안에서 잘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CLE 파이널 스테이지(8강 이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팀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운이 조금 따라줬으면 좋겠다”며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경기할 수 있는 기회다. 저도 선수들도 한 번 부딪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이 조직력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문제로

풀이된다. 지난해 ACLE에서 맹활약한 최경록과 이강현에 임대로 영입한 진시우까지 훈련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다.

결국 새로 구축된 외인 듀오인 자시르 아사니와 이스나 이루 헤이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아사니는 리그 스테이지 5경기에서 7골(평균 1.4골)을 터트리며 득점 선수를 질주, ‘아시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기량을 지닌 선수다.

헤이스는 약 3년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2022시즌 39경기에 출장, 12득점과 4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출장과 득점, 공격포인트를 모두 휩쓸며 광주FC의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던 그는 이 감독과 재회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들과 호흡을 맞출 박정인과 이재환, 박인혁, 황재환 등 영입생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베카 미켈타제와 이희균, 허술, 이건희 등 주요 전방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 감독은 공격진을 사실상 전면 개편했다.

반면 산둥 타이산은 리그 스테이지 2승 1무 3패(승점 7·골득실 -4)로 동아시아 10위에 머무르고 있다. 계약 해지설이 일었던 최강희 감독이 올해도 지휘봉을 잡기로 했지만 심판 판정 불복 등의 이유로 김현민 코치와 함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탕 티엔 코치가 대행할 전망이다.

벤치의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라인업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발레리 카자이슈빌리(등록명 바코·전 울산현대)와 조제 조아지 지카르발류(등록명 제카·전 포항스틸러스) 등 K리그 경험이 풍부한 자원이 전방에 배치되고, 중국 대표팀 주장인 왕다레이를 비롯해 가오준이와 리위엔이, 시에원닝 등이 탄탄하다.

올해 첫 경기에서 광주FC는 16강 진출 조기 확정, 산둥 타이산은 16강 진출권 진입을 목표로 격돌하는 가운데 이 맞대결 결과가 각자의 리그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 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강동훈이 10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결선에서 공중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로이터

## 스피드스케이팅·스노보드서 값진 메달 추가

###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金 11·銀 10·銅 9... 종합 2위  
남자 팀 스프린트 은메달  
김준호, 남자 500m 동메달  
강동훈, 빅에어에서도 동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개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 선수단이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스노보드에서 다시 한번 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로 종합 순위 2위를 수성했다.

김준호(강원도청)와 차민규(동두천시청), 조상혁(스포츠토토)은 10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이번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스프린트에서 1분20초48의 기록으로 중국(1분19초22)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팀 스프린트는 세 명의 선수가 400m 세 바퀴를 도는 종목이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선수가 대열을 이탈하고, 독주를 펼치게 되는 후미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팀 스프린트는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은 전날 금메달을 차지한 김민선(의정부시청), 이나현(한국체대), 김민지(화성시청)와 함께 남·여 모두 시상대에서는 성과를 이뤘다.

또 김준호는 같은 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35

초0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준호는 가오팅위(중국·34초95)와 0.08초, 모리시게 와타루(일본·34초97)와 0.06초 차로 메달 색깔이 바뀌었다.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강동훈(고림고)은 다시 한 번 구릿빛 묘기를 펼쳤다. 그는 같은 날 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결선에서 1차 시기 77.75점, 2차 시기 80.25점, 3차 시기 78.50점으로 총점 158.75점을 기록, 동메달을 획득했다.

빅에어는 하나의 큰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세 차례 연기를 펼친 뒤 점수가 가장 낮은 시기를 제외하고 두 차례 시기를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한규빈 기자

##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오늘 광파르

나흘 동안 강원 일원서 열전  
광주 28명·전남 80명 참가

‘환희와 감동의 축제 한마당’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1일 막을 올린다. 광주와 전남 장애인체육인 110여명도 메달 획득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1일 오후 4시 강릉라카이 샌드파인 라카이 불룸에서 ‘동계 스포츠 중심지 강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공식적인 막을 올려 14일까지 나흘간 강원 일원에서 열전을 펼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3월 강원

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동계체전 전 종목을 도내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협약에 따른 첫 개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선수 518명과 임원 및 관계자 618명 등 총 11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바이애슬론과 쇼트트랙,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7개 종목에서 경쟁

이 펼쳐진다.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110여명 규모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광주 선수단은 쇼트트랙과 컬링 등 2개 종목에 28명, 전남 선수단은 바이애슬론과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5개 종목에 80명이 파견됐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 8-9일 사전 경기로 열린 쇼트트랙에서 잇따른 메달 소식을 알렸다. 유승협(호반건설)은 남자 500m

IDD 성인부 은메달과 남자 1000m IDD 성인부 동메달을 차지하며 멀티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박정철(소림학교) 역시 남자 500m DB와 남자 1000m DB에서 두 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선수단은 컬링 4인조가 유일한 메달 사냥 기회로 남아 있다. 광주 선발 팀은 12일 오후 8시 강릉컬링센터에서 부산 선발 팀과 혼성 휠체어컬링 4인조 WC-E 16강을 치른다.

한규빈 기자